

2009년도 하반기 육계산업 전망

하반기 종계 · 부화업 전망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종

1. 환율 하락, 닭고기 수입량 증가 예상

2008년 하반기에 전세계로 파급된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한 금융위기는 환율상승을 불러와 사료용 옥수수 등 국제곡물 값을 인상시켜 닭고기의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는 주 요인이 되었다.

생산자의 입장에 보면 생산원가 상승이란 부정적인 면과 닭고기 수입억제라는 긍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하여 혼미스러웠고, 경기불안으로 소비감소의 골이 깊어져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정부가 환율안정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여 경제위기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육계산업은 아직까지도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국내산 닭고기 가격이 일정 기간 고가로 유지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환율 하락에 의한 역효과로 닭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점차 이들 요인들은 국내의 닭 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대비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호황 뒤엔 닭고기 생산량 증가

작년까지 병아리 값의 상한선은 수당 600원으로 업자들의 머리 속에 잠재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외환위기와 더불어 곡물가격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상승되면서 병아리가격의 상한선도 바뀌는 이변이 연출되었다.

부화업계 사상 처음으로 병아리 수당 800원이란 새로운 최고가격을 형성했으며 유래 없을 만큼 장기간 동안 고가가 형성되었다. 비록 닭고기의 생산원가가 높아져 이윤은 크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닭 값이 고가가 유지될 것이라 업자들의 예상에 따라 각 계열사마다 닭고기의 생산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영업전략이 바뀌면서 병아리 수요가 대폭 많아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종계의 입식열기는 극에 달하였는가 하면 심지어 종계수입까지 검토할 정도로 물량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는 이미 원종계의 수입량을 늘린 결과 앞으로 종계의 분양수수 증가로 하반기 이후에는 종계생산 잠재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육계산업의 전망은 다소 어두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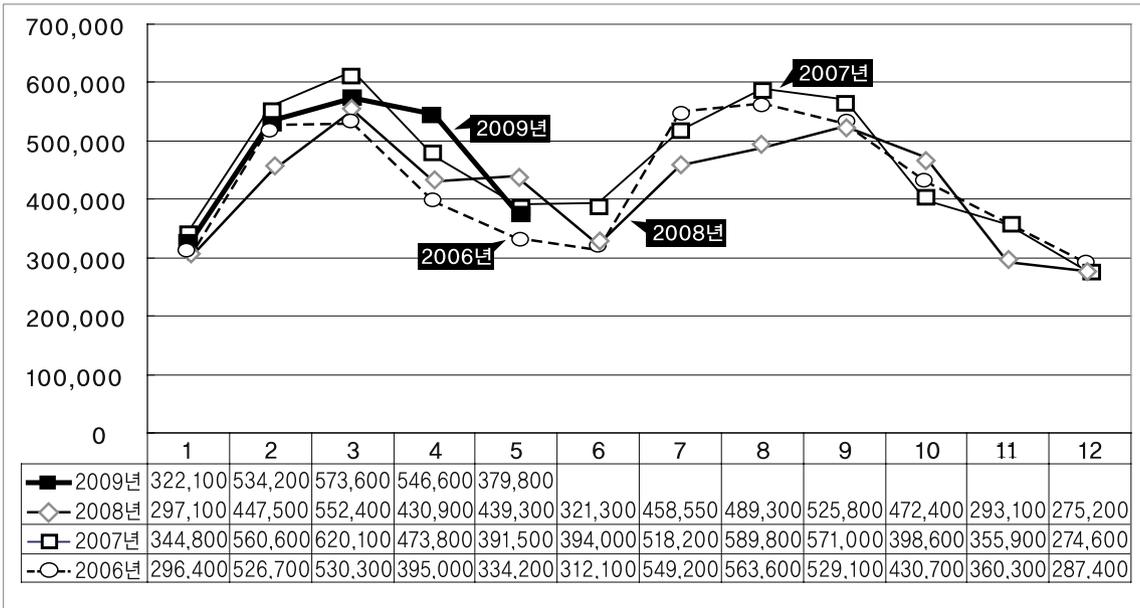
3. 종계 입추현황과 병아리 생산추정

〈표 2〉에서 보듯이 상반기에는 병아리가 예

하반기 종계 · 부화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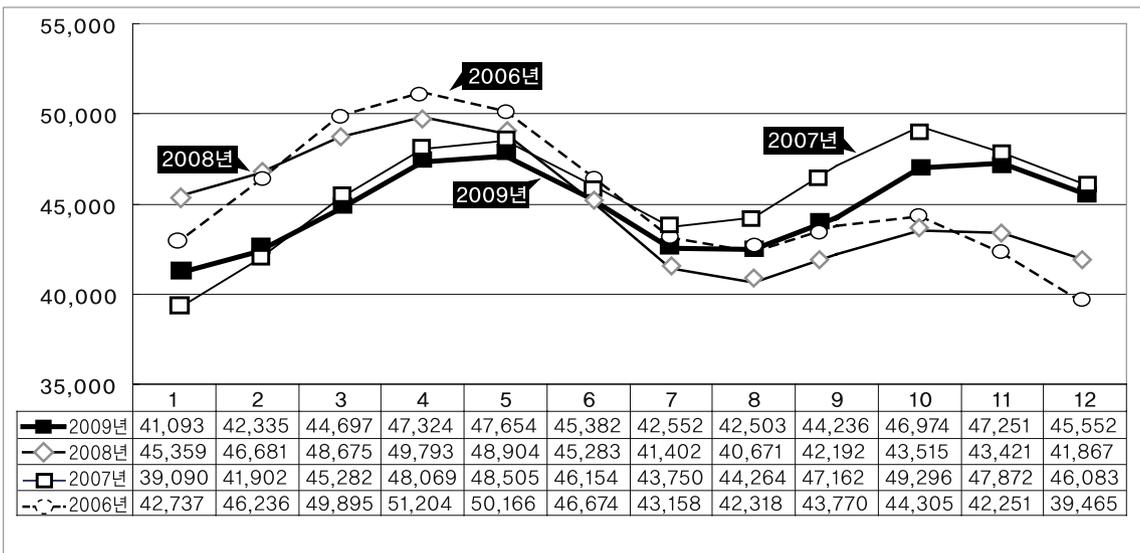
〈표 1〉 지난 4년간 종계분양 현황

(단위 : 수수)



〈표 2〉 실용계 병아리 생산잠재량 추정

(단위 : 천수)



2009년도 하반기 육계산업 전망

하반기 종계 · 부화업 전망



년에 비하여 생산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8월 이후부터 급격히 생산량이 증가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표 1>에서 보듯이 상반기 종계분양수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4. 종계의 생산성 회복이 변수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종계의 생산성이 매우 나쁘다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종계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더없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사료의 품질 저하를 꼽을 수 있다.

올 상반기까지의 생산성 저하는 사료의 품질이 다소 불안정하여 초래된 여지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율 안정으로 여름 이후에 생산되는 사료의 품질이 안정을 되찾고 질병도 소강상태가 될



경우 당장 금년 하반기부터 종계의 생산성은 현재보다 회복 속도가 좀더 빨라질 것으로 추측된다.

5. 경쟁력은 품질과 생산성 향상이 필수

최근 병아리 가격이 장기간 고가를 유지하자 병아리의 품질은 반대로 최악이라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병아리 공급자는 정상적인 제품을 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일부 병아리 판매업체들은 병아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부화장에서 강 선별이 아닌 비정상적인 제품도 일부 섞어서 판매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영업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받아들여진다. 우선 당장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식을 저버리는 행동을

육계산업은 아직까지도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국내산 닭고기 가격이 일정 기간 고가로 유지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환율 하락에 의한 역효과로 닭고기 수입이 늘어나면 점차 이들 요인들은 국내의 닭 값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대비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단시일의 변화를 바라보고 이익을 높이려는 생각보다는 궁극적으로 닭고기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내야 육계산업이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움직이며, 생존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게 되면 개인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육계산업의 국제경쟁력까지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난계대 질병으로 육계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계장, 부화장 질병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육계산업은 병아리와 육계가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생산성 향상에 접근하기 쉬워진다. 각각 별개란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면 생산성 향상은 늘 남의 일로 떠넘기게 되어 최종 목적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에 시작된 경제난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 나타났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주었다. 한편으로는 기회를 제공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감을 안겨주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우리 육계산업 종사자들의 몫이며, 육계산업 관련 통계를 통해 더욱 절실히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단시일의 변화를 바라보고 이익을 높이려는 생각보다는 궁극적으로 닭고기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내야 육계산업이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 움직이며, 생존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는 길이 급선무라 생각된다. 🐔